

사랑한다면, 밥상을 차리자

If you love, let's set the table

글. 조영학 Cho, Younghak | 번역가

얼마 전 술자리에서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

“밥, 반찬 해대기 지겹지 않아요?”

번역가 동료들이 대부분 여성이자 주부이기에 만나면 대화가 대개 이런 식이다. 아예 복잡한 요리법을 묻기도 한다. ‘감자탕할 때 빼는 얼마나 삶아요? 매콤 닭발 해먹고 싶은데, 냄새 안나요?’ 우습게도 이젠 이런 대화도 그다지 어색하지 않다. 내일모레면 나이가 환갑에 나름 천하 상남자이건만……

15년 전 아내한테서 부엌을 강탈해 지금껏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묻는 질문일 게다. 주부 경력이 나보다 짧은 데도 슬슬 게으름이 나고 특하면 외식이건만, 이 늙은 남자는 이렇다저렇다 군말 없이 매일매일 밥상을 차려내는 것 같으니 말이다. “아니, 지겹지 않아, 아직은.” 내 대답은 그랬다. 정말이다. 힘들거나 귀찮기는 커녕 요즘엔 오히려 더 신이 났다.

“무슨 반찬이 양념 범벅이래요?”, “아빠, 우린 오늘도 모르모트야?” 덩석 부엌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둔한 남자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었다. 덕분에 가족들의 원망과 한숨에 너무도 익숙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식구들의 투정과 불만이 줄더니, 오히려 내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다는 등, 칭찬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마침내 가족의 입맛을 잡은 남자! 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 아직은 지겹지 않다. 후배 주부들 질문에 다시 답을 한다면……가족들이 내 밥상을 지켜워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지치고 지켜워할 일은 절대 없으리라.

15년 전 어느 날, 아내가 발을 다쳤다. 병원까지는 왕복 2킬로미터 거리. 당연히 내가 편안





히 모셔야 할 일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난 당시에든 운전을 하지 못했다. 아파트 단지 안이라 택시든 버스든 대중교통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그 더운 여름 그 먼 거리를 아픈 사람을 부축해 걸어서 왕복을 해야 했다. 아내는 “나 때문에 애먼 사람이 고생이다”며 미안해 했지만 내 심정은 또 달랐다. 제대로 가장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아픈 사람 하나 편안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땅속이라도 꺼지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이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대단한 일도 할 것도 아닌데, 이 여자나 행복하게 해줄까?’ 아내는 지금껏 10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를 돌보았다. 난 직장을 그만 두고 얼마 전부터 집에서 번역 일을 시작했으니 어찌면 당연한 선택이기도 했다.

“그래, 이 여자 한 번 행복하게 해주자!”

‘상남자’라는 별명은 농담에서 태어났다. 몇 년 전, 누군가 페이스북에 ‘파주 상남자 모임’이라는 글을 올렸기에 댓글에 “상남자는 바로 나다. 상 차리는 남자.”라고 너스레를 떨었다가 그만 별명으로 굳어지고 만 것이다. 하긴, 틀린 말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남자가 상남자라면, 나야 말로 아내와 가족을 위해 내 삶을 바쳤으니 누구보다 상남자라 하겠다. 심지어 사내가 부엌에 들어가면 거시기(?)가 떨어지던 시대였으니, 내 생애 전부를 건 셈이다.

내가 잡은 것은 ‘가족의 입맛’만이 아니다. 난 ‘가족의 마음’까지 잡았다. 투정 한 마디 없이 오랜 세월 밥상을 차려내자, 아내도 마음을 열고 아이들은 아빠를 향해 무한한 신뢰를 보였다. 내가 얻은 건, 바로 그런 삶이다. 부부가 서로에게 의지와 휴식이 될 수 있는 가정, 아이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공간……그 꿈이 오래 전 작은 선택 하나 덕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내 곁에 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난 그 꿈에 겨워 이렇게 매일매일 밥상을 차려내고 있다.

상남자가 되고 싶은가?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밥상을 차리자.